



우  
...move, from us to Earth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교육과 문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한국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입니다.  
환경 이슈를 통해 기업과 정부, 국민과 환경단체가 환경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원-원 방식의 나눔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환경재단 도요새는 이 같은 아념 아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 전문 출판사입니다.

 **움직이다**  
...move, from us to Earth





# 해리 칼리오

## Harri Kallio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불운했던 새에 대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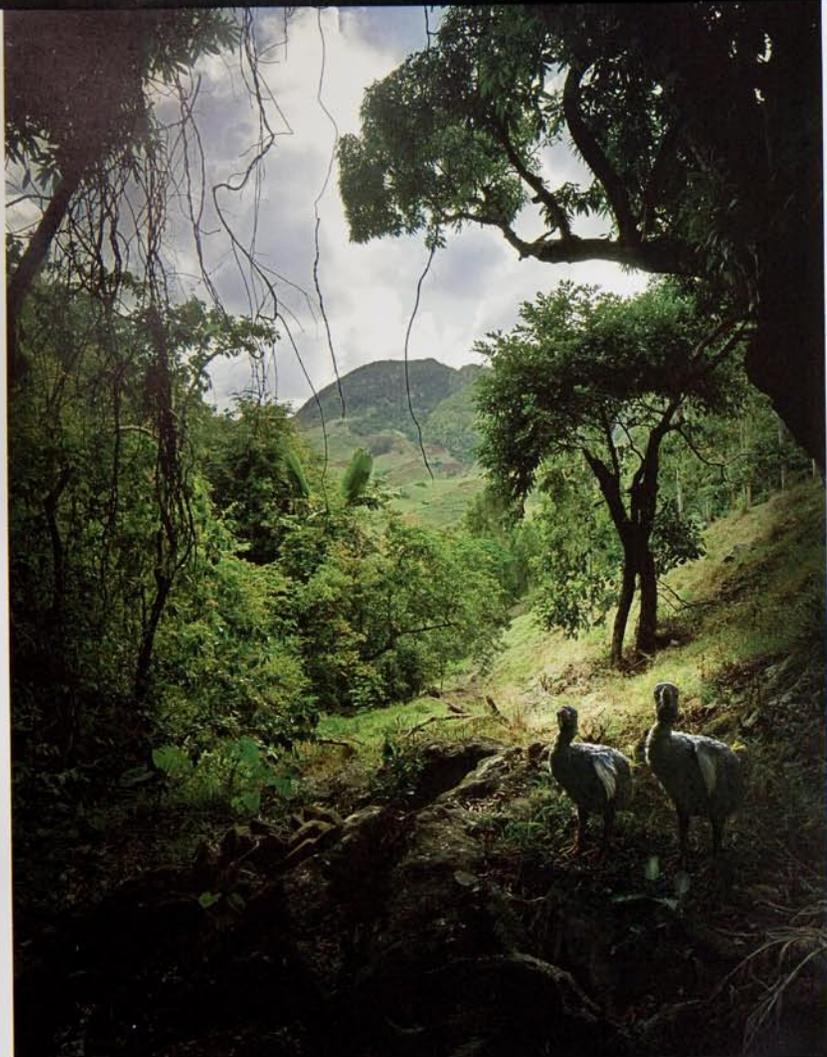
도도새가 역사에 등장한 건 16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이 모리셔스 섬에서 이들을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부터다. 그 후 도도새는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체수가 감소하다 몇 십 년 만에 끝내 멸종되고 말았다. 도도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 것은 무자비하게 저질러졌던 생명에 대한 침략 때문이었다.

### Sad but Serious Fact

*Le Gros Gris #2, Mauritius, 2001*

The dodo was first found when the European explorers had landed on the island of Mauritius in the 16th century. Due to rampant hunting, the dodo has become extinct. Merciless massacre resulted in the sad extinction.

©Harri Kallio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치명적인 운명

도도새는 땅 위에 동지를 틀고 사는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  
몸무게가 20Kg이나 나갈 정도로 아주 뚱뚱한 새이다.

*Cruel Fate - Domain du Chasseur #2, Mauritius, 2007*

The dodo can't leave the ground because it can't fly.  
It even weighs 20 kilograms.

©Harri Kallio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쓸모없는 날개

해안가 바위 위에 떼지어 앉아 짹짹 울어대는 도도새들,  
한 뼉도 안 되는 날개가 너무나 잠잠하다.

Useless Wings *Riviere des Anguilles #6, Mauritius, 2002*

Dodos are crying on the rocks. What if it could use its wings and fly away...

©Harri Kallio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뒤늦은 희망

태초의 순수한 낙원에서 무탈하게 살았던 도도새들.  
만들어진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잘 살기를  
기도하게 되는 건 왜일까.



### It's Too Late *Lion Mountain #5, Mauritius, 2004*

The dodo has enjoyed the nature until ruthless people  
came to the land. If these models were real...

©Harri Kallio



## 상상의 만남

“상상과의 만남”은 멸종동물인 도도새에 대한 사진적 고찰과 재건이다. 조사한 많은 자료에 따라 나는 실제 크기의 새를 조각형으로 또한 실존하는 도도를 사진을 통한 시각적 자료로 재건했다. 프로젝트의 절정은 도도에 모형을 그들의 자연서식지인 모리셔스 섬에서 사진으로 재건시킬 때였다.

도도들이 매일 생활했을 그 장소에서 사진작업을 할 때 모리셔스는 분명 17세기 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농경지와 집 그리고 현대 문명으로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땅을 찾는 것은 매일의 싸움이였다.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멸종 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헌사

잃어버린 낙원을 추억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슬플까,  
아니면 기억하는 이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더 슬플까.

## A Dedication to Extinction

*Rivière des Anguilles #2, Mauritius, 2001*

The dodo may feel sad to remember the good old days.  
But it may feel worse that no one can remember them  
any more.

©Harri Kallio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모리셔스의 도도새

도도새 한 쌍이 햇빛이 들성들성 쏟아지는 정글 속을 뒹뒹뒹 걸어가고 있다.

Dodos in Mauritius *Combo Nature Reserves #3, Mauritius 2004*

Two dodos are running in the jungle.

©Harri Kallio



해리 칼리오  
Harri Kallio

### 되돌리고 싶은 순간

만약 도도새가 날 수만 있었다면 멸종당하는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Could Turn back Time? Rivière des Anguilles #3, Mauritius, 2001*

If the dodo could fly, then they might not have become extinct.  
Sometimes you want to get something back though it has gone already.

©Harri Kallio

